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제62호 【루계 제23014호】 주체99(2010)년 3월 3일 (수요일)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대국령마루를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2월계획을 빛나게 수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부문과 기계공업부문에서 뜻깊은 2월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공업생산액계획과 중요현물지표계획수행에서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탄광들에서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공동구호와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여 증산돌격투쟁을 과감하게 벌림으로써 2월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1월에 이어 2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순천과 덕천, 북창과 득장, 개천과 구장, 천내와 강동, 경원과 온성, 명천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석탄공업부문의 많은 탄광들에서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뜻깊은 2월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북부지구의 풍인탄광, 상화청년탄광, 고건원탄광, 룡북청년탄광, 석성탄광과 함남지구의 운곡탄광을 비롯한 많은 탄광들이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2월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또한 문천탄광, 삼천탄광, 강서탄광, 전천탄광들에서도 2월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채탄에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헤치며 굴진실적을 높이였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화풍, 룡림, 립석탄광의 생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순천지구의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그리고 덕천지구의 제남탄광과 남양탄광, 개천지구 봉천탄광의 능력확장공사가 계획성있게 추진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각지 발전소들에서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남다른 긍지드높이 2월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각지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는데 이바지할 결의드높이 증산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2월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전력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운영호기대수를 지난 시기에 비하여 늘이고 기업소앞에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순천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대혁신, 대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2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전력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때보다 비할바없이 늘이였다.

각지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발전기들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수풍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보수정비와 물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발전기들의 높은 효률운전을 보장하여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총진군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 2월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철도성에서는 사령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책임일군들이 각 철도국들의 수송현장들에 나가 수시로 제기되는 정황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령활하게 하면서 화차의 머무름시간과 회귀일수를 최대한 줄이는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청진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이 금속공장들에 대한 물동수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국의 수송지휘일군들은 렬차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관심을 돌리고 그 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철강재증산에 필요한 물동들을 기동성있게 집중수송함으로써 성강과 김철의 로동계급이 오늘의 총공세의 앞장에서 달리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평양철도국에서는 탄광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캐낸 석탄을 신속히 화력발전소들에 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기관차와 화차들을 기동적으로 배차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중요물동들을 제때에 실어날랐다.

함흥철도국에서도 중요대상들에 대한 화물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켰다. 이곳 수송전사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기업소들에 물동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목표밑에 견인정량보다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한 투쟁을 벌려 자랑찬 증송성과를 이룩하였다.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화차수리와 점검보수를 빈틈없이 하여 기관차의 실동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임으로써 경공업공장들과 금속공장들에 대한 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보낼 각종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2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설비와 뜨락또르, 압축기와 감속기, 변압기와 전동기 등 중요현물지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숨결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월계획을 열흘이상 앞당겨 수행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게 지펴올려 례성강청년2호발전소에 보내줄 한기분의 대규모수력발전설비를 생산보장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마지막투쟁을 긴장하게 벌리면서 압축기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각종 압축기생산과제를 13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 2월 중순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대형산소분리기를 보내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앙양된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총공격전을 들이대여 유압식굴착기 등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전기기계공업부문의 모든 공장들에서 변압기와 전동기, 애자와 차단기, 각종 전기선생산계획을 현물량적으로 빛나게 수행하였다.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현수애자생산을 다그친것을 비롯하여 전기기구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326전선공장, 안주절연물공장,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보통강전기공장, 원산기계공장의 로동자들도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여 말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공작기계, 륜전기계공업부문에서도 지난 2월에 공작기계, 뜨락또르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담한 공격전으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말겨진 뜨락또르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군중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궐기모임 진행, 당과 국가간부들 식수에 참가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였다. 식수절을 맞이한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 열의밑에 나무심기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나무심는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가까운 앞날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무심기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궐기모임이 2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란봉에서

모란봉에서 진행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김병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심창훈, 중구역직맹위원장 김경석, 모란봉공원관리소 지배인 장원복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인민이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때에 식수절을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주체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나무를 많이 심어 조국의 산들을 울창한 수림으로 덮이게 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산림자원을 늘이고 조국산천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현실로 꽃펴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애를 따라배우며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지대별, 필지별, 수종별나무심기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식수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막이와 병해충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온 나라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진행된 청소년학생들의 궐기모임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대동강축전지공장 초급청년동맹비서 리성국,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최명준, 평양전승중학교 학생 김송금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0(1991)년 4월 13일 이곳에 나오시여 평양시내 청소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산림조성의 새 력사를 펼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나무심는 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청소년학생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을 더 많이 심고 가꾸며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와 학교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는데서 앞장설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고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발휘하며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실현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힘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한경송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만경대구역농근맹위원장 김영섭, 곽산군 석동리농근맹위원장 황숙희, 은파군 목천협동농장 농장원 변만규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푸른 숲 설레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룡악산유원지를 찾으신데 이어 원산농업종합대학과 묘향산유원지,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타조목장 등을 현지지도하시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의 한마음안고 나무모밭을 더 늘이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나무를 정성다해 심어 사름률을 높이며 관리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촌들에서 뗄나무림조성과 집뜨락, 마을주변에 과일나무심기를 계속 힘있게 벌려 실지덕을 보게 하며 마을들을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근맹조직들이 동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모두가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도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중앙식물원 수목원에서

중앙식물원 수목원에서 열린 녀맹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대성구역녀맹위원장 김승실, 희천시 풍산동 초급녀맹위원장 박옥경, 모란봉구역 인흥1동 녀맹원 강명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식수절을 맞는 전체 녀맹원들은 우리 조국을 아름답게 전변시키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새 조국의 터전을 다지시던 때로부터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며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복락할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선군시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원들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봄철나무심기에 한결같이 떨쳐나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이 끝난 후 당과 국가간부들은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조국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질 래일을 그려보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었다.

이날 철도성과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궐기모임을 가지고 보람찬 식수를 하였다.

식수절을 맞으며 근로자들이 나무들을 심었다.
—모란봉에서—

광물생산에서 계속 혁신

상농광산에서

상농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광물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1월에 이어 뜻깊은 2월에도 힘찬 투쟁을 벌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는 자랑을 떨친 이곳 광산의 로동계급은 지금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광물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광물생산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광산참모부에서는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대담한 작전과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광물생산의 성과여부가 자기들의 일본새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광산의 책임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면서 대중을 증산투쟁에로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신흥갱과 6.6갱의 광부들이 광물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여러차례의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광산의 2월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한 이들은 3월에 들어와서도 전차, 광차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선로관리에 힘을 넣어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콘베아갱의 로동자들도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설비들을 신속히 수리하면서 그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캐낸 광석을 제때에 선광장으로 보내주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선광직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파쇄기, 부선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정광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1, 2공무직장 전투원들도 광차바퀴와 마광기용뽈을 비롯한 각종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지금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광물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정경철

기술혁신운동 활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기술혁신운동의 첫걸음을 큼직하게 내짚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섰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은 강계편직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을 비롯하여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중요한 기술혁신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세 또한 드높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소조원들은 과학기술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다.

4대선행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비상한 각오를 안고 기술혁신의 전장에 용약 뛰여들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소조원들이 주체철생산능력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어려운 기술혁신과제들을 맡아나섰다.

전력공업부문에 파견된 소조원들도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3대혁명전위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만만한 투지에 넘쳐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사색과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남덕탄광, 개천탄광, 제남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채탄막장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전기기관차에 필요한 부분품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성능높은 첨단기계설비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앞장에 섰다.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올해에 기어이 자랑찬 기술혁신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불타는 결의에 넘쳐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일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일 각 하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따뜻한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우간다정부의 의지를 재확언하는바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2010년 2월 11일 캄팔라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정일령도자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전체 민주꽁고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당신께서 행복하시고 장수하실것을 축원하며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의 뉴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위원장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
2010년 2월 12일 킨샤사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각 하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바라는 나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귀국인민에게 계속적인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마로끄왕국 국왕
모하메드 6세
2010년 2월 15일 라바트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각 하

나는 각하의 행복한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
2010년 2월 16일 까히라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일 원 수 각 하

우리는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만추장국 추장
까부스 빈 싸이드
2010년 2월 16일 마스까트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신

김 정 일 각 하 께

존경하는 총비서각하

나는 존경하는 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몽골인민혁명당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두 당사이의 협조가 올해 2010년에도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발전과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쓰 . 바 야 르
2010년 2월 5일 울란바따르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김 정 일 각 하 께

각하

저는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세네갈민주당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저는 조선인민이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조선반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귀국이 제기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이 뜻깊은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우리 두 당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세네갈민주당 전국상임비서
마 마 두 라 민 띠 암
2010년 2월 10일 다까르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신

김 정 일 각 하 께

각하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이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경축하고있다는것을 커다란 기쁨속에 접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기회에 저는 아데마당의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두 당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과 련대성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나라의 번영과 조선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디 옹 꾼 다 뜨 라 오 레
2010년 2월 12일 바마코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신

김 정 일 동 지 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저희들은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몰도바공화국 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와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당의 동지들은 당신께서 사회적정의와 민주주의, 인민정권건설사상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로고를 바치고계신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간중심의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강인담대성을 발휘하시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 귀국의 발전과 사회경제적진보,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발전시키며 정치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두리에 철의 의지로 뭉친 온 사회의 강철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보로 됩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커다란 관심속에 맺어진 우리 두 당사이의 동반자관계와 호상지지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전통이 계속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저희들은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구상하시는 모든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에 넘쳐계시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아울러 조선로동당과 영웅적이고 근면하며 평화애호적인 조선인민이 자기앞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적인 인사를 드립니다.

몰도바공화국 공산주의자당
중 앙 위 원 회 위 원 장
울 라 지 미 르 워 로 닌
2010년 2월 15일 끼쉬뇨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몬떼비데오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호쎄 알베르또 무히까 꼬르다노각하

나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되고 취임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3월 1일 평 양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

신천군 우룡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학습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초급일군들이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들에 대한 독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농사차비로 들끓는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농장원들에게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장정에 대하여 눈물겹게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농장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갈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기어이 대풍작을 마련하기 위해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정 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될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산원에서— 리 진 명 찍음

청년들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돌격대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불멸의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영웅, 첨단을 돌파하고 조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 유능한 청년인재가 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여기에는 언제나 청년들을 굳게 믿고 시대의 앞장에 값높이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입니다.》

대고조시기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는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이다. 혁명성의 열도에 있어서나 창조되는 기적과 위훈에 있어서 그 어느때와도 대비할수 없는 격동적인 시기가 바로 대고조시기이다.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은 대고조시기에 남김없이 떨쳐지게 된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청년들의 불굴의 용맹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떠나 대고조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대고조격전장은 그 어디나 영웅적위훈의 활무대라고 할수 있다.

청년들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이 앞장에서 기세를 올리며 질풍같이 내달려야 대고조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게 된다. 전후 온 나라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선구자, 혁신자도 청년들속에서 나왔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영웅들도 우리 청년들속에서 많이 배출되였다. 지난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도처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선군청년전위들의 불멸의 위훈이 깃들어있다. 청년들의 활력이자 대고조진군속도이고 용솟음치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의 높이이자 대고조시대의 기적과 위훈의 높이이다.

오늘의 총공세는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책임적인 투쟁이다. 이 장엄한 대고조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제껴야 할 선봉대, 결사대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대고조진군의 기수가 되여 청춘의 피를 끓이고 심장을 불태울 때 우리 조국은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은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게 된다.

우리 청년들은 대고조진군의 맨 앞장에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충직한 전위대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며 청년들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청춘의 리상과 포부, 청년들의 찬란한 미래는 혁명의 수뇌부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오늘의 대고조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결사옹위전이며 수령의 사상과 뜻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보람은 없다.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이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고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할 전위대오가 우리 청년들이다.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치는 신념의 맹세이고 비상한 각오이다. 이런 불타는 심장을 지녔기에 희천으로 달려온 군인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종전같으면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2~3년안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할수 있었다. 오늘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구상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희천의 용사들이야말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귀감이다.

오늘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그 어느 부문, 어느 단위, 어느 초소에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청춘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런 미더운 청년전위들이 있다.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완강한 실천력, 당이 준 과업은 죽으나 사나 기어이 관철하는 결사의 투쟁기풍이 대고조시대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되고있다.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혁명의 수뇌부를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해나가는 충직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제일 큰 재부이다.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령도자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바쳐진 삶을 더없는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는 수백만의 청년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고조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청년들은 경제강국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용감한 전투대오이다.

용감성은 청춘의 대명사이다.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남먼저 달려나가고 막아서는 난관을 앞장에서 헤치는 용맹성과 강의한 기질을 떠나 청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청춘의 삶의 가치는 시대의 부름에 앞장설줄 알고 조국이라는 거목을 위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댈줄 아는 헌신성으로 빛나게 된다.

우리 청년들은 시대가 요구하고 조국이 바란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떨쳐나서는 영웅적기질의 소유자들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고조력사의 갈피마다에는 탄광과 광산, 발전소건설장과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서슴없이 달려나가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낀 청년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청년탄광, 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와 같이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창조물들은 조국청사에 길이 전해질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의 기념비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대고조진군에서 청춘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시절에 짐을 져도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삽질을 해도 불이 번쩍 나게 하여 대고조시대의 청년영웅이 되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늘의 대고조시대 우리 청년들속에는 남의 그늘밑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 벅찬 시대의 숨결을 외면하고 뒤자리에서 앉아뭉개는 락오자가 없다. 반제군사전선의 전초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전투장들에서 돌격전의 기수, 결사대가 되여 불멸의 위훈을 세워나가고있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참모습이다.

지금 우리 당은 청년들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굳게 믿고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나가고있다. 금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가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있기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사변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우리 조국은 생기와 활력에 넘쳐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로 선군조선의 존엄을 힘있게 떨쳐나가는 첨단돌파의 개척자, 선봉대이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다. 왕성한 탐구심으로 과학기술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기적을 창조해나가는것이 바로 청년들이다. 기발한 착상과 과학기술적발견에 대한 지향과 포부가 없으면 그것은 청춘이 아니다.

오늘의 대고조는 과학기술의 대고조, 첨단돌파전이다. 지금 우리 조국땅우에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첨단돌파의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어디서나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세상을 들었다 놓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이 거창한 첨단돌파전의 선두에서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2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도 우리 청년인재들이 주력이 되여 이룩한 승리이며 우리가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된것도 새 세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피타는 노력의 결실이다. 세계야금계에 통장훈을 부르고 21세기의 기적을 안아온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과 국제콤퓨터바둑경기대회에서 련이어 우승한것과 같은 경이적인 성과들은 우리 청년들의 선구자적, 개척자적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는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원대한 포부와 비상한 창조적열정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며 모든 분야에서 선진수준을 따라앞서고 패권을 쥐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기개이다. 우리의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기초과학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맹렬히 돌진하고 청년대학생들이 20대, 30대의 세계적인 과학자, 발명가가 될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나가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고 승리자이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우리의 청년들이 대고조시대 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나아가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양양하다.

모든 청년들은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청춘의 슬기와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며 용감무쌍한 돌격대, 결사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김 철 학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에 따라 수도 평양의 곳곳마다에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는 10만세대 살림집!

그려보면 볼수록 집집마다에서 울려퍼질 행복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완공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야말로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건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된다고 기뻐하시며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택건설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당면하여 평양시에 현대적인 10만세대의 살림집을 몇해사이에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필생의 목표이고 리념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우리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주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건재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통이 큰 살림집건설작전을 련이어 펼치시여 창조와 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으시였다.

그 나날 내 나라, 내 조국의 면모는 얼마나 몰라보게 전변되였던가.

평양시에만도 옹근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수많은 현대적인 거리들이 련이어 일떠섰으며 전국의 방방곡곡 깊은 산골막바지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았다.

이번에 수도 평양의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완공된 주택들은 식구가 많은 가정도 생활상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매 살림집들의 건평이 평균 백수십㎡에 달하며 난방조건과 상하수도설비, 배풍과 가열설비로부터 출입문의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것이 흠잡을데없이 완벽하다. 찬장과 가시대, 책상과 식탁, 의자를 비롯하여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지고 심지어 겨울김치를 보관할수 있는 창고까지 곁달려있어 말그대로 주민들의 생활상요구가 충분히 보장된 최상급의 주택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다.

하지만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혁명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살림집을 건설해주시였을뿐아니라 집을 한채 지어도 인민들이 살기 편리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완성시켜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같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또 어디 있으랴.

그렇듯 위대한분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은 날이 갈수록 훌륭히 변모되여가고있으니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인민생활향상에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국

당원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대고조격전의 일선용사가 되고 능숙한 군중동원자가 되자! (공동구호에서)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철석의 의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원들

김철의 당원들이 오늘의 총공세를 승리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사의 전장에 뛰여들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이 투쟁구호를 실천의 구호, 행동의 구호로 높이 추켜들고 김철의 당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진격의 돌파구를 우리가 열자!

이것이 련합기업소당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드팀없는 신념이다.

그 신념이 일터마다에서 영웅성과 희생성을 낳고있다.

강철2직장 당원들의 영웅적기상을 보라, 어머니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어떻게 불사신처럼 싸우고있는가를.

1월의 강추위에 전로의 벽수관들이 얼어붙었을 때였다.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벽수관들에 붙은 얼음을 녹여야 했다. 이런 때 말없이 나선 사람들이 당원들이였다.

조재현, 주철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당원들은 수십m나 되는 전로의 높은 곳에 올라섰다. 그리고 벽수관에 붙은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당원들은 며칠밤을 패면서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을 벌렸다. 너무도 피로하여 그들의 눈에는 충혈이 졌다. 그러나 당원들은 자기 위치를 조금도 뜨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모험이 아닌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도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은 없었다.

올해의 보람찬 진군의 선봉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결사전에 나선 김철의 당원들이 아닌가.

당원들은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끝내 벽수관들의 얼음을 녹여버리고 강철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렇듯 이곳 당원들은 영웅성과 희생성, 대담성을 지닌 돌격투사들이였다.

어찌 강철2직장의 당원들뿐이랴.

열간압연직장의 당원들속에서도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였다.

얼마전 직장에서는 압연롤이 부족하여 압연강재생산을 계획대로 내미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일정에 올랐던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현장에서는 당원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분위기는 자못 심각하였다. 이런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롤용착작업반의 당원들이였다.

《무엇을 주저할게 있습니까. 말겨만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

작업반장 리강철동무와 리정룡, 리철성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의 목소리는 불처럼 뜨거웠다.

이미 쓰던 롤들을 새롭게 개조하기로 결심한 그들의 제의를 당조직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에 힘을 얻은 당원들은 종이우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격렬한 론쟁도 벌리면서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원들은 불타는 사색과 정열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롤용착방법을 착상해냈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도 열어놓았다.

비약의 폭풍은 주체철용광로의 격전장에서도 세차게 일고 있다.

지난 1월 이곳 당원들은 뜻하지 않은 정황에 부닥쳤다. 로의 어느 한 배출구에 고장이 생겼던것이다.

로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물음이 제기되였을 때 당원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대답했다.

로체2작업반의 김학일, 정광진, 김영일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서슴없이 로체우에 올라섰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용감한 참전자들답게 당원들은 과감하게 돌진해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로의 고장부분은 제때에 퇴치되여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되였다.

철의 도시에 타오르고있는 거세찬 불길에 대하여 말할 때 당원기술자들을 떼여놓을수 없다.

시대를 주도해나가는 자력갱생의 선구자답게 김철의 당원들은 첨단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주체철용광로와 원호식련속조피기현장 등에 나간 당원기술자들은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기술혁신과제들을 해결해놓음으로써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더욱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용광로들에 쇠물이 철철 넘쳐흐르고 압연강재가 쨍쨍 쏟아져나오고있을 때 보장단위의 당원들도 치렬한 격전을 벌리였다.

얼마전의 이른새벽 운수부문의 당원들은 여러량의 화차가 기관차고장으로 전용선에 들어오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강철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를 실은 화차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물론 기관차를 수리한 다음에 화차를 끌어온다고 해도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며 생산이 진행되고있는 때에 순간도 지체할수 없다고 생각한 당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철도연선으로 달려나갔다.

찬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들은 누구 하나 물러설념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감동된 수십명의 로동자들이 당원들의 뒤를 따랐다.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그날 화차를 밀어 자재보장을 선행시킴으로써 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렇듯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진격의 돌파구가 자신들의 투쟁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한 련합기업소의 당원들은 날에 날마다 새로운 비약을 안아오며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불보다 뜨거운 헌신성

평양방직기계공장 당원들

얼마전 우리와 만난 구성방직공장 일군은 말하였다.

《필필이 쏟아지는 천들을 보며 그들의 수고를 생각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를 보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겁니다.》

우리는 공장일군이 자기들보다 먼저 소개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자진하여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

지난 1월 26일, 만짐을 한 화물자동차가 구성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유연창대직기의 전동함식씨실넣기기구를 새롭게 개조할 부분품을 싣고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떠난 차였다.

화물자동차의 운전칸에 앉은 평양방직기계공장 직기조립작업반 반장 리정철동무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돌았다. 조립공들인 김경철, 윤명철, 김충혁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도 다를바 없었다.

그도그럴것이 그들앞에는 짧은 기간에 20대의 유연창대직기개조를 끝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던것이다.

유연창대직기의 씨실넣기기구의 개조,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적극 지지해주신 기술혁신이였다.

지난해 9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씨실넣기기구를 개조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던 날 공장로동계급은 결의해나섰다.

—방직기계공업의 패권을 쥐리라.

그때부터 공장당조직의 지도밑에 새형의 직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혁신력량이 조직되고 한쪽으로는 새로운 씨실넣기기구의 부속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들의 투쟁은 올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더욱 고조되였다. 공구직장에서 년간생산계획을 당창건 65돐전으로 끝낼 목표밑에 일정계획을 160%로 넘쳐 수행하고있을 때 기계가공1직장에서는 1월생산계획을 열흘앞당겨 넘쳐 수행하였다. 주물직장에서도 어려운 조건에서 주물품보장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바로 낮과 밤을 이어 바쳐온 공장종업원들의 헌신의 땀방울이 그대로 스민 부속품들을 싣고 떠난 그들이였다.

차창에 구성방직공장 정문이 나타났을 때 작업반장 리정철동무가 한마디하였다.

《동무들, 우리 수도의 당원들이라는것을 잊지 말자구.》

수도의 당원들!

이런 숭고한 자각이 기적을 낳았다. 불과 7시간동안에 20대 직기의 전동함식씨실넣기기구를 해체하고 도착한 날밤부터 달라붙어 단 3일만에 모든 조립작업을 끝냈던것이다. 과연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사실 공장에서는 이들에게 열흘안으로 조립전투를 끝낼 과업을 주었었다. 직기 한대 개조에만도 130여종에 수백개의 부속품해체와 조립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여야 하는 조건에서 이들이 세운 하루에 4대의 직기개조목표도 사실 높은것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마저 또다시 갱신하여 하루 7대분을 개조할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전투, 전투를 벌렸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구성방직공장 일군은 말하였다.

《처음 보기엔 평범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설비개조전투의 나날 저는 그들의 진짜모습을 보았습니다. 꼭 화선당원들의 모습이였습니다. 식사하는 시간마저 아까와 기대옆에서 줴기밥을 들며 헌신한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습니까.》

일군의 말이 옳았다.

그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품들여키워 공장에 보내주신 제대군인당원들이였다.

달리는 살수 없는 조선로동당원!

이 성스러운 자각을 안고 평양방직기계공장의 당원들은 오늘도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고있다.

온 나라 곳곳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터져오를 올해 상점의 매대들마다 필필이 천들이 쌓일 때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전국의 방직공장들의 기술개건에 이바지한 이들의 수고를.

본사기자 림현숙

진격의 앞장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 백바위광산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 백바위광산의 당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광물생산에서 혁신과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당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의 선봉에서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헌신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혁신의 불길은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직동갱에서부터 세차게 타올랐다.

갱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창조정신을 안고 전망이 큰 새로운 채굴장을 마련하기 위한 줄기찬 돌격전을 벌렸다.

전기부족으로 착암기를 돌릴수 없게 되였을 때였다.

—우리 당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함마전으로 오늘 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

당원들은 이렇게 웨치며 떨쳐나섰다. 채광소대의 전투장에서는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초급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광물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갱에서는 불과 보름동안에 새로운 방출구를 만들고 광물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을수 있었다.

어찌 직동갱의 당원들뿐이랴.

황철갱의 일군들과 당원들도 비상한 자각을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어느날 뜻하지 않은 고장으로 자동차가 멎어섰을 때였다.

갱장은 당원들과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가 광석을 제때에 수송하지 못하면 그만큼 광산의 광물생산계획수행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중으로 자동차수리를 끝냅시다.》

이에 호응하여 황철갱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자동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불과 며칠동안에 수만t의 광물을 제때에 역두에까지 수송하여 화차에 실어주는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다.

혁신의 불길은 공무중대전투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당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광산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는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화선병사의 자세로

윤전군 송학협동농장에서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화선에 선 병사의 자세로 대고조의 선봉에서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는 사람들가운데는 윤전군 송학협동농장의 당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당원들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한겨울의 맵짠 눈보라는 소한에 들어서면서 더더욱 기승을 부리였다. 눈보라때문에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속에서 두텁게 얼어붙은 니탄을 곡괭이로 뜯어낸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작업장에 물까지 나오는 바람에 작업조건은 더욱더 불리해졌다. 바로 이런 때 기발을 들고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농장앞에 어렵고 힘든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앞장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군 한 미더운 당원들이였다.

니탄캐기전투장에서 격식없는 당원협의회가 열리였다. 관리위원장 변창원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오늘의 니탄캐기전투는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라 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난관을 뚫고나갑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대중이 우리 당원들을 지켜본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그의 말에 제대군인당원들이 호응해나섰다.

—화선에 선 병사가 적탄알이 날아온다고 물러서는것을 본적이 있는가.

—주공전선을 지켜선 긍지높이 니탄캐기에서 위훈을 떨치자.

분조장들인 길광남, 김영찬, 로명철, 윤기만동무들이 정대와 함마를 들고 전투장에 뛰여들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자기 맡은 초소를 참호로 여기고 언제나 병사시절처럼 살고있는 그들의 모습은 농장원대중을 격동시켰다.

한쪽에서는 솟구쳐오르는 물을 퍼내고 다른쪽에서는 캐낸 니탄을 질통으로 져나르는 전투가 벌어졌다. 곳곳에 우등불이 타올랐다. 하루밤이 지나면 여기저기에 니탄무지들이 생겨났다. 포전마다에 쌓아올린 니탄무지를 보며 농업근로자들은 주공전선을 담당한 전초병이라는 자각을 안고 니탄캐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손에 박힌 장알이 풀릴 사이없이 땀흘려 일한 당원들의 뒤를 따라 거름생산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결의를 가다듬었다.

당원들이 앞장서면 대중이 분발하고 일터마다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기마련이다.

지난 1월초 어뜩새벽 제3작업반 포전옆을 지나던 리당비서 김일세동무는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는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가까이 가보니 당원들이 썩은 흙파기에 여념이 없었다. 간밤에 있은 소행을 말해주듯 무둑히 쌓여있는 썩은 흙을 보며 리당일군이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작업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가고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야 당원들이 아닙니까.》

소박한 이 말속에 공동사설의 요구대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어디서나 대고조의 북소리를 남먼저 울리고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는 능숙한 정치활동가, 용맹한 돌격투사가 되려는 의지가 뜨겁게 담겨져있었다.

어느새 이 사실을 알고 작업반원들이 작업도구를 들고 달려나왔다. 온 작업장에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였다. 하루가 다르게 작업실적이 쑥쑥 올라갔다. 단 며칠동안에 수백t의 썩은 흙을 파내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화선에 선 병사의 자세로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이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려는것, 바로 이것이 이곳 협동농장당원들의 심장마다에서 끓어번지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용맹한 돌격투사가 되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의 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이들의 선봉적인 투쟁에 의해 지금 초고전력전기로에서는 주홍빛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모든 생산공정에서 전례없던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올해 첫 전투에서부터 강철생산계획을 일,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온 이들은 기술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 차지당 용해시간과 전력소비를 줄이고 강철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장거에 더 많은 강철생산으로 화답해나선 이들은 《다음교대를 위하여!》의 구호를 높이 들고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철강재증산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일념안고 능숙한 정치활동가, 용맹한 돌격투사가 되여 대고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1강철직장 당원들의 뒤를 이어 기업소의 모든 부문, 모든 직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고무추동하고있다. 석탄생산에서 당원들이 앞장서도록 —원리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여러 단위가 3중모범청년분조(작업반)칭호 쟁취

각지 농촌에서 3중모범청년분조(작업반)칭호를 쟁취하는 단위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봉산군 청계협동농장, 함주군 신덕협동농장, 덕성군 신흥협동농장,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의 청년분조들과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숙천군 칠리농장의 청년작업반들을 비롯한 10개 단위가 3중모범청년분조(작업반)칭호를 쟁취하였다.

수여식이 2월 2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3중모범청년분조(작업반)칭호의 영예를 지닌 청년분조, 청년작업반들에 전달되였다.

3중모범청년분조(작업반)칭호를 수여받은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은 청년들을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로 가슴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인다

안주절연물공장에서

안주절연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생산을 늘이면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며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는것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절연물의 가지수를 늘이면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짜고들었다. 이 사업에서 지배인 리금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중요하게 틀어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실현하여 절연물의 질을 높이는 문제,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문제,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문제…

목적지향성있는 뚜렷한 계획에 따라 공장에서는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먼저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발동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였다.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력량을 잘 꾸리고 그들이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실현에서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배워오도록 하고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기술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내밀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연구과제를 정확히 주고 새로운 기술혁신안이 창안도입되여 은이 나타날 때에는 그에 대한 평가사업도 잘해주었다. 이 과정에 큰 투자가 없이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되였으며 지방의 원료로 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로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공장에서는 기술학습의 날에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가 맡은 생산공정을 깊이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인 운전조작과 설비관리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결과 종업원들의 평균기술기능은 한단계 오르고 제품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언제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경영활동에서 조직자이기 전에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직접 풀어나갔다. 지배인이 직접 새 기술에 의한 질좋은 절연물생산방법을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일군들속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이 나왔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내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걸린 문제를 푸는 걸음을 걷자

채취기계공업지도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지난해에 년간계획을 공업생산액적으로는 물론 중요현물지표별로 훨씬 앞당겨 끝낸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는 올해 1월과 2월에도 희천발전소건설장과 석탄공업부문에 보낼 각종 뽐프, 착암기, 권양기, 감속기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 비결에 대하여 이곳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틀끓는 현실속에 내려가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아쥐고 아래단위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끝까지 풀어나간데 있다고 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입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아래단위들의 걸린 문제를 풀어주자, 이것은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이 언제나 강조하고있는 문제이다.

동림광산기계공장에서 선철과 철판의 부족을 느끼고있을 때였다.

공장에 내려간 국장 리광남동무는 현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후 그곳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공장적인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그곳 일군들도 난감한 기색을 보이였다. 책임일군은 지도국의 력량을 발동하여 감속기, 전차생산에 보충적으로 필요한 선철과 철판을 해결할 결심을 굳히였다. 공장에서 올라온 그는 성들과의 련계밑에 지금까지 생산된 감속기, 전차의 공급단위들과 현 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 서부지구의 탄광들에만도 못쓰게 된 감속기, 전차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였다. 책임일군은 지체없이 능력있는 일군들을 해당 성들에 보내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설비페기 및 이관수속을 전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지도국의 자동차들을 탄광들에 보내여 못쓰게 된 설비들을 공장까지 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결과 짧은 기간에 수십t의 선철과 철판예비를 얻어낼수 있었다. 아래단위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지도국일군들의 일본새는 동림광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공장에서는 전투목표에 반영된 감속기, 전차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아래단위 생산지도에서 보여준 책임일군의 실천적모범은 지도국안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더 분발하게 하였다. 평양탄광기계공장에 내려간 처장과 베아링협동품보장을 맡은 최유응동무도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생산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그곳 일군들과 힘을 합쳐 걸린 문제들을 앞장서 풀어나감으로써 해당 단위의 지표별생산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아래단위 공장들사이의 내부협동맞물림을 기동적으로 진행하여 지도국앞에 맡겨진 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수행한것도 생산지도를 아래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공장들의 실태를 손금보듯 파악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보산제철소에 보낼 대상설비생산과제가 사리원광산기계공장에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공장의 유도로실태를 잘 알고있는 김광수동무를 비롯한 지도국의 생산지휘일군들은 공장자체로 해당한 주강소재를 생산하자면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대상설비생산기일이 긴박한 조건에서 일군들은 지도국아래 공장들의 내부협동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것을 결심하였다. 진지한 협의끝에 유도로상태가 좋고 기술기능이 높은 신의주광산기계공장에서 이 주강소재를 생산하도록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협동품생산을 위한 지도국적인 자재맞물림이 지체없이 진행되고 능력있는 생산지휘일군이 현지에 내려가 공장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주강소재를 빠른 시일안에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협동품이 생산된 즉시로 지도국에서는 그것을 사리원광산기계공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수송을 조직하였다. 지도국일군들의 면밀한 조직사업은 그대로 대상설비생산성과로 이어지게 되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뚜렷한 생산실적을 올리고있는 이곳 지도국일군들의 사업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아래단위들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따라세울 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보다 큰 생산적앙양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탄부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참된 일군의 모습

덕성탄광 초급당비서였던 양명선동무

덕성탄광 초급당비서였던 양명선동무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지금도 이곳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송풍기적역할을 수행한 참된 당일군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돌격전에 그대로 육탄이 되여 뛰여드는 불굴의 혁명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하순 2갱 탄부들이 높이 세운 100일전투 월 석탄생산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였다는 혁신적인 소식은 온 탄광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한 때 양명선동무가 2갱 사무실에 들어섰다. 갱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아 그들의 성과를 축하하면서 양명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초급당비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불러일으켜 갱의 최고생산년도 월 석탄생산실적을 돌파해보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그러는 초급당비서의 얼굴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볼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대담한 목표였다. 기일은 불과 10여일!

그때 침묵을 깨뜨리며 초급당비서의 짧으나 결연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탄부들은 해낼것입니다. 난 그들을 믿습니다.》

그길로 탄부들속에 들어간 양명선동무는 굴진공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암질조건에 따라 천공배치는 이렇게 한다, 발파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한다, 운탄조직은 이렇게 해야 능률이 난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그는 막장실태를 확 꿰들고있었다. 초급당비서의 고무에 굴진공들의 사기는 한껏 높아졌다. 막장으로는 한명 또 한명 굴진공, 채탄공들이 모여들었다. 양명선동무는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가 벌리고있는 오늘의 대고조는 수령결사옹위의 대고조이다.

이 시각에도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 피줄을 이은 선군시대 우리 탄부들이 이쯤한 성과앞에 자만하고 마음의 랑개를 늦출수 있겠는가?!

우리모두 떨쳐나 최고생산년도의 월 석탄생산실적을 기어이 돌파하자!

그의 호소에 탄부들이 열렬히 호응하였다. 대중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그날 저녁 갱초급일군들과 다시 마주앉은 양명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석탄을 캐내는 주인은 우리 탄부들입니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탄부들의 혁명적열정을 고무해주고 그들의 대담한 결심이 실현되도록 도와주고 떠밀어줄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이렇게 되여 2갱에서는 최고생산년도 월 석탄생산실적을 돌파하기 위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양명선동무는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막장에서 막장으로 옮겨가며 심장의 피를 끓이는 화선식정치사업과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떠밀어주었다.

갱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년간계획을 이미 앞당겨 수행한 림창호고속도굴진소대가 새로운 굴진방법을 받아들여 굳은 암벽을 쑥쑥 내밀며 전진하고있을 때 김철남채탄중대원들은 집단적혁신으로 매일 2배이상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허나 그즈음 갱초급일군들과 탄부들은 초급당비서가 때없이 몰려드는 동통을 남몰래 이겨내고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막장에서는 늘 웃는 모습의 초급당비서였다. 참을수 없는 아픔이 몰려들 때마다 그는 어제날 고역속에 허덕이던 머슴군의 아들을 한개 단위의 당사업을 책임진 당일군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믿음을 되새기며 전사의 도리를 다하리라 자기를 채찍질하였다. 얼굴에 질어가는 병색을 보며 어머니가 걱정하면 《어머니, 전 일없습니다. 저야 달리는 살수 없는 몸이 아닙니까.》라고 하며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해주던 양명선동무였다.

그는 늘 막장에, 탄부들속에 있었다. 때로는 온 가족과 함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을 고무하였고 걸린 문제가 제기되면 막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제일 어려운 모퉁이를 솔선 맡아나섰다. 때로는 우스개소리로 온 막장을 웃음가마리로 만들군 하던 초급당비서였다.

날이 흐를수록 양명선동무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였다. 그는 의사들에게 부탁하여 아픔을 순간이나마 덜어주는 약을 받아다 몰래 먹군 하였지만 얼굴에 비낀 병색만은 감추지 못하였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초급당비서를 보며 갱초급일군들이 여러차례 휴식할것을 안타깝게 권고하였지만 양명선동무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결의한 석탄생산목표는 얼마 남지 않았소. 그 누구에게도 이 목표를 돌파하기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소. 우리모두의 생명은 오직 당정책관철을 위해 필요한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양명선동무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우리모두의 생명은 당정책관철을 위해 필요하다!

양명선동무는 이곳 탄광에서 당일군으로 일해온 지난 기간 바로 그것을 탄부들의 가슴속에 드놀지 않는 신념의 기둥으로 세워주기 위해 애써왔으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던것이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떨쳐나선 2갱의 탄부들이 마침내 최고생산년도의 월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하였다.

현장방송이 그들의 전투성과를 알리고 탄광현장속보판에 위훈의 소식이 큼직하게 나붙을 때, 탄부들이 꽃목걸이며 꽃보라속에 묻혀있을 때 미소를 지으며 2갱을 떠나 다른 갱막장으로 향하던 양명선동무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이렇게 그는 47살의 한창 나이에 우리곁을 떠나갔다.

하지만 지금도 이곳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그를 잊지 못해하고있다.

《우리 초급당비서》, 탄광마을의 늙은이, 가정부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양명선동무를 이렇게 부르며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언제나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나오는 탄광마을의 자연흐름식수도망에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탄광종합목욕탕에도, 탄부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주는 버섯재배장과 태양열온실 그리고 통이 크게 꾸려진 집짐승우리를 비롯한 후방기지들에도 《우리 초급당비서》의 헌신적인 모습이 비껴있다고 누구나 절절하게 말하고있다.

자기에게 차례진 새 문화주택의 입사증을 안겨주며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 언제나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자고 고무해주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던 초급당비서의 품에 안겨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영예군인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친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도 차려주고 신혼살림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숟가락, 저가락의 개수에 이르기까지 마음쓰던 초급당비서를 잊을수 없다고 말하는 제대군인들의 감동깊은 이야기…

우리는 여기에 한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한다.

얼마전 2갱으로는 양명선동무의 안해와 아들, 딸이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안고 찾아왔다. 지원물자속에는 양명선동무의 어머니인 80고령의 황정금녀성이 자필로 쓴 편지도 있었다. 그 편지를 랑독하는 갱일군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이 자리에 내 아들도 있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내 아들이 바란것은 석탄을 더 많이 캐내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리겠다는 그 한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들의 그 마음까지 합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로 계속 혁신하기를 바랍니다. …》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어린 편지의 글줄에서 탄부들은 오늘도 세차게 높뛰는 양명선동무의 숨결을 느꼈으며 결사관철에로 호소하는 그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에 화답하듯 2갱막장에서 아니 온 탄전의 수천척 지하막장마다에서 석탄증산의 열풍이 더 세차게 타올랐다. 석탄증산의 동음이 탄전을 뒤흔들고있다. 참된 당일군의 심장의 박동소리는 오늘도 전진하는 대오속에서 세차게 울리고있다.

그렇다. 양명선동무는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덕성탄광 초급당비서였던 양명선동무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그를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였으며 가족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김호혁

원산군민발전소 물길굴건설 1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막장에 넘치는 애국의 열정

쿵—쿵 련속 터지는 발파소리, 우릉우릉— 버럭을 가득 싣고 광차들이 줄달음치는 소리, 끊기지 않고 울리는 압축기, 양수기들의 동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원산군민발전소 물길굴건설 1려단 전투원들이 막장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3갱 금강군중대, 평강군중대와 1갱 원산화학공장중대들에서는 굴진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일군들이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앞선 착암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도수산관리국중대의 막장에서 갑자기 물주머니가 터졌을 때였다. 중대장 조형근동무는 물구멍을 맞받아 비호같이 몸을 날리였다. 그뒤를 중대원들이 따라섰다.

몸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세찬 물줄기, 뼈속까지 스며드는 랭기…

하지만 어깨를 겯고 진을 친 그들은 바위처럼 끄떡없었다. 이날 그들은 결사의 의지로 끝내 석수구멍을 막아냈고 단 며칠이라는 짧은 기간에 침수되였던 갱을 완전히 복구하였다.

그때 조형근동무는 대원들에게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달리는 우리의 앞길을 과연 무엇이 막아서겠소.》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배짱이 그 말속에 얼마나 굳세게 비껴있는것인가.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산비탈의 권양기실과 갱막장을 련결하는 새 다리건설을 굴진을 드팀없이 밀고나가면서 며칠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낸 김화군중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지난 기간 자체의 힘으로 많은 설비들을 되살려낸 문평제련소중대의 일군들과 기술자, 돌격대원들도 바로 그런 강의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이다.

그 정신력으로 5갱 1소대장 윤철호동무와 소대원들은 매일 굴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으며 7갱 상서청년광산중대의 착암공들은 갑자기 배수설비가 멎어 물이 허리를 치는 속에서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착암기를 계속 돌렸다.

얼마전 5갱 1소대의 돌격대원들은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모두가 굴진막장의 암벽을 더 빨리, 더 본때있게 밀어제낄 열의에 넘쳐있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더 높은 로력적성과를 안고 들어서고싶었을뿐입니다. 그래야 어버이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신 강원도사람이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을것이 아닙니까.》

전에 없는 굴진실적을 이룩한 날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윤철호동무가 한 말이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애국의 열정에 의해 물길굴은 힘차게 뻗어가고있다.

리경일

거목을 받드는 뿌리가 되리

김책대흥가공사업소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에서 전체 인민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지난 정초 김책대흥가공사업소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심장은 여느때없이 높뛰였다.

인민생활향상!

올해공동사설의 요구를 곱씹어 새길수록 자기 단위가 맡고있는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의 구상을 맨 앞장에서 실천해가는것임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되는것였다.

—올해전투는 잡도리부터가 달라야 한다!

그는 즉시 생산현장으로 내려가 종업원들속에 공동사설의 내용과 진수를 깊이 인식시키고 모두가 올해전투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남김없이 바쳐가도록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게 된 종업원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올해 대고조진군의 첫 자욱을 힘있게 내짚었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갈 불타는 지향을 안고 지난 시기에도 애국의 길에 순결한 량심을 묻어온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지난해 새로운 농산물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때에도 그들은 놀라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른봄 우등불을 피워가며 채 녹지 않은 언땅을 파헤쳐 총면적이 수천㎡에 달하는 농산물생산기지를 한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번듯이 일떠세웠을 때 그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니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수 있었다.

그렇게 일떠세운 생산기지에서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짓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또 그 얼마인가.

농산물생산기지가 일떠선지대는 산비탈밭이였지만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밭을 옥토로 전변시키기 위해 땀을 아끼지 않았다.

늘 앞채를 메고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는 지배인의 뒤를 따라 종업원모두가 등짐으로 수백t이나 되는 도시거름과 풀거름, 흙보산비료를 내고 모든 밭을 꽃밭처럼 알뜰히 가꾸어 마침내 이곳에서 많은 량의 알곡을 생산해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50일전투, 10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쳤던 기쁨을 오늘도 소중히 안고있는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올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수산작업반 종업원들이 사업소의 앞장에 섰다.

그들은 지난해 100일전투기간 어구관리를 짜고들고 합리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잡이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올해에 들어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높아진 수산물생산계획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고기배의 능력을 늘이기 위한 설비개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전창연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기술자들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이미 있던 고기배의 능력을 크게 개조함으로써 올해전투의 첫날부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고기배로 매일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칠수 있었다.

올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드센 불바람은 가공작업반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종업원들은 이미 꾸려놓은 생산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올해를 작업반기술혁신의 해로 규정하고 콤퓨터에 의한 종합지령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가고있다.

—조국이라는 거목을 받드는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자!

이것은 김책대흥가공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간직된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러한 불타는 지향을 안고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가는 길에 애국의 자욱자욱을 값높이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남호

지식경제시대의 앞장에서

얼마전 인민대학습당을 찾았던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서 마련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을 위한 학습실인 1층 20호실에 들리였다. 그날도 이곳에서는 수많은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학습에 열중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실력으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애써 배우며 창조적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실장 김연숙동무는 CNC기술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적극 도입되면서부터 더 많은 일군들이 학습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온다고 소곤소곤 말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우리의 일군들은 자질향상과 실력제고를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여기고 분초를 아껴가며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있다.

기계공업성, 전자공업성, 륙해운성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받들어갈 의지를 안고 학습당에 자주 찾아와 필요한 책들을 탐독하면서 지식을 넓혀나가고있다.

우리는 학습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공업성의 한 일군을 만나보았다.

《오늘도 저는 경공업제품현대화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얻고 갑니다.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어깨에 떡살이 더 지는게 일군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여 사람들에게 첨단의 지름길을 밝혀주고 떠밀어주는것이 바로 우리 일군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경공업성에서는 많은 일군들이 인민대학습당에서의 진지한 학습을 통하여 나라의 방직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적극 습득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인민대학습당에서 학습하는 과정에 알게 된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방직기술의 세계적추세와 관련한 과학기술보급사업도 적극 벌리고있다고 한다.

인민대학습당을 통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학습은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데 실례로 경공업성에서는 일군들이 꾸준히 학습하여 련마한 실력을 가지고 평양방직공장에서 염색의 질을 높이고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전자공업성 일군들은 인민대학습당을 적극 리용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불장식등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도입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계공업성과 도시경영성, 륙해운성에서는 일군들부터가 자기 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적내용들을 환히 꿰들고 현장에 적극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현대적인 공작기계생산과 륙해운수부문에서의 콤퓨터화, 오수처리공정의 현대화 등 여러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일군들답게 인민대학습당을 통한 학습을 잘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는 일군들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사람들모두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전민학습의 대전당, 훌륭한 과학기술보급기지에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며 혁명과 건설의 인재로 자라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다시금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오은별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기네정부 수상을 의례방문

리경선 기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월 22일 쟝 마리 도레 기네공화국 민족통일정부 수상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김정일**각하의 위대성 특히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최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한다.

령도의 거장이신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향도따라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조선의 통일위업이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기네는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과 도이췰란드사이의 외교관계설정 9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9돐에 즈음하여 토마스 쇄퍼 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조선도이췰란드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대통령 호르스트 쾰레르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도이췰란드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 식수

식수절을 맞으며 캄룰 이슬람 주조 유엔아동기금 림시대리대표와 대표부성원들이 2일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식수를 하였다.

손님들은 조국강산을 푸른 숲 설레이는 아름답고 풍요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에 단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림시대리대표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앞에 훌륭히 꾸려진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나무들을 심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오의 기수, 나팔수가 되여

경성탄광 지배인 박덕봉동무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경성군의 험준한 산발과 골짜기들을 타고넘으며 탐사에 열중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푸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 일념으로 탄광개발에 스스로 나선 그들은 겹쌓이는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여 유망한 탄맥을 찾아내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경성탄광 지배인 박덕봉동무도 그때의 탄광개발자들중 한사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경성탄광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탄광이다. 허나 이 탄광을 가리켜 사람들은 작아도 큰 탄광, 힘있는 탄광이라고 부르고있다. 한것은 탄광이 지난 10여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면서 군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왔기때문이다. 그 성과속에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일해나가는 박덕봉동무의 헌신과 열정이 깃들어있다.

그는 탄광개발을 시작할 때에 벌써 자기 한몸을 다 바쳐서라도 기어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하고야말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탄광을 개발한 뒤 모진 고난이 겹쌓이는 속에서 석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권양기와 소철레루가 없어 애를 먹고있던 어느해 겨울이였다. 박덕봉동무가 말없이 소달구지를 끌고 나섰다. 멀리 청진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설비와 자재를 해결해올 결심이였다. 어디서 권양기와 소철레루를 주겠다는데도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그 먼길을 달구지를 끌고가겠는가고 하는 탄부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탄광개발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지가 아니라 등짐을 져서라도 우리는 기어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해야 합니다.》

며칠후 탄광으로 돌아오는 달구지에는 탄광사람들이 그처럼 목마르게 기다리던 권양기와 소철레루가 한가득 실려있었다.

맹세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서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박덕봉동무의 생활신조였다.

지난 100일전투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의 크나큰 신임과 은정속에 제2차 전국선군시대공로자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박덕봉동무는 즉시 탄광적인 증산경쟁운동을 벌릴것을 결심하고 부족되는 동발나무해결을 위해 대오의 앞장에 섰다.

탄광에서 100여리나 떨어진 산판으로 오른 박덕봉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한지나 다름없는 천막생활을 해가며 결사전을 벌려 닷새만에 100일전투의 마감까지 넉넉히 쓸수 있는 수십㎥의 동발나무를 생산해내였다. 또한 새 탄밭을 적극 개발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탄광실정에 맞는 《전면채탄방법》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전투기간 석탄생산량을 5배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하여 경성탄광은 100일전투기간에 최고생산년도실적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하는 길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나 타협도 모르는 실천가형의 일군, 손락이 드센 일군으로 소문난 박덕봉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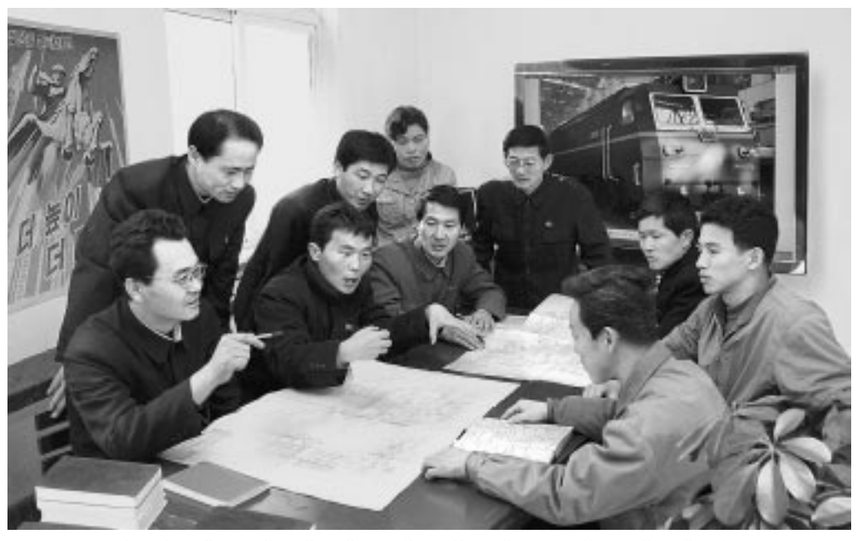
하지만 그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종업원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의 한 사람이라는 자각으로 그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배인》이라는 또 하나의 정답고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자기 딸의 결혼식준비로 마련했던 옷감과 가정용품을 모두 김은순동무에게 안겨준것을 비롯하여 탄광이 생긴 때로부터 오늘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10여명 종업원들의 결혼상을 차려주고 새살림에 필요한 가정용품을 일식으로 마련해준 일이며 탄광에 배치받은 제대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 수십명의 청년들을 탄광의 주인으로, 혁신자로 키운 사실은 모두 박덕봉동무가 지닌 뜨거운 인정미를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2012년까지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늘여 군내공업생산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100% 보장하자는것이 박덕봉동무를 비롯한 경성탄광로동계급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오늘도 박덕봉동무는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더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보답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대오의 기수, 나팔수가 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첨단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사색과 사색이 모아진다. 지혜와 지혜가 합쳐진다.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첨단돌파의 전초병,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할 맹세로 가슴 불태우며 오늘도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새로운 전기기관차개발을 위하여 탐구에 탐구를 거듭해나간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에 기초하여 보다 현대화된 수송수단들을 만들기 위해 분발하여야 한다고 몸소 그 방향까지 밝혀주시며 영예로운 과업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을 한시인들 잊으랴.

10월의 대축전장에 승리자로 떳떳하게 들어서려는 한결같은 결의를 안고 그들은 새형의 전기기관차개발에 지식인의 량심과 의리,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간다.

아무리 어려운 길도 단숨에 내달려 21세기의 요구에 맞는 세계적수준의 수송수단들을 개발하려는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이렇게 고동친다.

—첨단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반전평화투쟁은 절박한 현실의 요구

새해공동사설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공동사설의 이 호소는 우리 민족의 강렬한 평화지향과 조국통일열망을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드는것은 우리 겨레의 운명과 통일위업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평화통일은 겨레의 세기적숙망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하루빨리 통일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화목하게 살아갈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 하여 60여년에 걸치는 오랜 세월 항시적인 전쟁위협에 시달리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집권세력을 동족과의 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하면서 시대흐름에 역행하여 대결전쟁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한 겨레의 지향과 노력에 도전하면서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는 피뢰호전광들의 책동은 실로 악랄한것이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는것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1만여명의 남조선강점 미군을 포함한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미제침략군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며 피뢰군의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들과 민간무력까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그 규모와 내용, 성격에 있어서 완결된 하나의 예비전쟁으로서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불장난소동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에 대비한다고 떠들면서 대규모적인 무력증강과 새로운 무기, 장비의 개발소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악랄한 반평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아니라 대결과 긴장의 분위기가 짙게 감돌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반공화국침략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우리 겨레의 운명을 심각히 위협하고있으며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을 엄중히 저애하고있다. 겨레의 운명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자면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내외호전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드는것은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더없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사업을 다그쳐나가자면 그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총포성이 울리는 속에서는 대화와 협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북남관계발전에 대하여 론할수 없다.

지금 북남관계의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중단되고 교류와 래왕의 길도 가로막히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당국의 반통일적망동으로 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의 평양방문이 부결되고 민간단체들의 협력, 교류사업도 줄줄이 보류되는 등 동족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들이 계속 빚어지고있다.

지난해 8월 우리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로부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할수 있게 제반 문제들을 풀어주었을 때에도 남조선당국은 부당한 조건을 붙여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외세와 작당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려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기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겨레의 희망은 사라지고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첨예한 대결분위기가 감돌게 되였다.

보다싶이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은 강렬하지만 남조선호전세력의 악랄한 대결전쟁책동으로 하여 결국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6.15이후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적은 없었다. 북남관계의 악화로 조국통일운동도 엄중한 시련을 겪고있다. 북남관계의 현 위기는 전적으로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게 대결전쟁책동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이 빚어낸것이다.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책동을 짓부시지 못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으며 민족적화해와 협력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현실을 통해 우리 겨레가 다시금 찾게 된 교훈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해나가자면 온 겨레가 반전평화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대결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반전평화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는것은 온 겨레의 안녕을 수호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사활적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올해공동사설에서는 해내외 온 겨레에게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갈것을 중요하게 강조한것이다.

과감한 반전평화투쟁에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내외호전세력의 대결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 온 남조선땅이 반전평화의 열기로 들끓어야 하며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평화수호의 함성이 높이 울려나와야 한다.

해내외 온 겨레는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를 따라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조국해방 65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

교수의 탄복

어느해인가 《민족문제를 생각하는 학자들의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토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연히 《민족과 민족문제》라는 책을 얻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이 담겨진 그 책은 교수를 매혹시키였다.

글줄마다에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가 그의 심금을 울리였다. 하기에 토론회에서 교수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일**령도자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때문에 이처럼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신다.

누구보다도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시기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족을 위하시는 마음이 뜨거우시기에 **김정일**령도자님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김정일령도자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그분의 민족관을 인식하고 실천하는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고 도리이다. 그분을 따라 그분의 민족관에 살 때 자주가 있고 조국통일이 있으며 민족의 휘황한 장래와 겨레의 존엄높은 삶도 있다.》

교수의 토론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널리 전해졌으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통일애국의 신념을 굳게 해주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민족의 넋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서울에 사는 한 언론인은 자기 동료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한 말과 글이 이그러지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에 통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이 땅에서는 형형색색의 외래어가 범람하여 우리 글이 범벅투성이가 되고있어 고유한 우리 글이 사멸위기에 처하고있다. 그러나 한지맥으로 이어진 이북에서는 여기와는 달리 민족고유의 우리 말과 글이 생기를 잃지 않고 날로 발전하고있다. 텔레비죤이나 방송은 물론 각종 출판물들과 거리의 간판들 그 어데서도 외래어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 한마디로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고있는 이북이다.

나는 이 희한한 모습을 이북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직접 목격했다. 이것은 다 가장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님의 투철한 우리 민족문화어보존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러면서 그는 동료들에게 《**김정일**령도자님이시야말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시고 민족의 넋을 지켜주시는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가장 훌륭한 정치

어느해인가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예술인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활짝 꽃펴나고 민족적인 모든것이 계승발전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앞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으로 돌아간 그는 그 나날에 느낀 감정에 대해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북의 교예단배우들이 펼친 공연장면이 삼삼히 떠오른다. 비록 짧은 시간의 공연이였지만 종목마다에는 민족의 얼이 맥맥히 살아숨쉬고있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이북의 교예장면 하나를 통해서도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이북정치의 한 단면을 실감할수 있었다.》

그는 이북의 감동깊은 현실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며 애국애족의 훌륭한 정치를 펴시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남민중도 하루빨리 그분의 정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본사기자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걷어치우라

로씨야 원동고통련 위원장 담화발표

권천식 로씨야 원동고통련 위원장이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하여 2월 2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3월 8일부터 18일까지 남조선전지역에서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미군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투입되는것과 함께 남조선군의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들과 민간무력까지 동원된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호전세력이 이번 군사연습을 놓고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고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선행작전,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였다.

호전세력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걸고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년초부터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온데서 이것이 뚜렷이 실증되고있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남관계개선과 협력을 위한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오히려 도발적인 대규모군사연습책동으로 대답해나선것은 해외동포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밝혔다.

로씨야 원동고통련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평화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로씨야과학원 전문가가 폭로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전문가 알렉싼드르 워론쪼브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려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각종 무장장비들과 많은 병력이 동원되는 미국 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안전보장의 견지에서 볼 때 모순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 연습이 미군과 남조선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성격을 띠고있다.

연습은 북남관계는 물론 조미관계에도 긍정적영향을 주지 못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도 이바지하지 못한다. 조미관계는 지난해에 미국과 남조선이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 후 극도로 악화되였다. 이번 연습은 조선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있는 배경하에서 진행된다. 조선은 오래전부터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은 이것을 반대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핵우산》으로 보호해주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핵문제가 산생되게 되였다. 오늘날 명백한것은 조선이 대외정책에서 핵군축을 주장하고있는것이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북과 남의 화해를 도모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이바지하겠는지는 시간이 보여주게 될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가 2월 27일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성명은 호전세력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호전광들이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려는데 대해 우리 민족은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성명은 만약 호전광들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공화국은 필승불패의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군사적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라고 밝혔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는 해내외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합리화될수 없는 범죄적인 대결정책

남조선보수당국이 저들이 몰아온 북남관계파탄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더욱 오만불손하게 나오면서 저들의 범죄적인 《대북정책》을 극구 합리화하고있다.

지금 괴뢰당국자들은 그 무슨 《원칙고수》니,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한편 모략적인 《여론조사결과》까지 내돌리면서 마치 저들의 《대북정책》이 민중의 《지지》를 받고있는듯이 현실을 외곡하고있다.

이것은 여론을 오도하여 파산에 직면한 《대북정책》에 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계속 강행추진하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흉계의 발로로서 용납될수 없다. 도대체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대북정책》이 그 누구의 《지지》를 받을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동족과 대결하는것이 과연 《원칙고수》인가. 그야말로 대결과 반통일에 환장한 역적무리들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궤변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오는 《비핵,개방,3 000》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전면배치되는것이다. 그것은 보수패당이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을 뒤집어엎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기 위해 조작해낸 사상 류례없는 반통일대결정책이다.

이자들은 지난 2년간 그 범죄적인 대결정책을 내걸고 《원칙없이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대화를 5년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고아대면서 북남대화와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파탄시켰다.

한편 외세와 작당하여 《선핵폐기》와 《개방》을 떠벌이며 반공화국《제재》와 압력, 대결전쟁소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그들이 그 무슨 《급변사태》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니 하는 망발들을 공공연히 늘어놓고 이른바 《비상통치계획》, 《통일대계탐색연구》와 같은 극히 도발적인 북침모략각본들을 꾸며내며 체제대결을 격화시킨 사실, 지어 《선제타격》폭언까지 줴치며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발발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킨것 등은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시대착오적이며 범죄적인 《대북정책》에 기초한것이였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아량있고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계속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보수당국의 《대북정책》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집권초기부터 동족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키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것과 관련하여 충고도 주고 아량도 보이면서 어떻게 하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하고 금강산,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개성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와 금강산, 개성지구의 관광재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지금 이 사업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기본장애는 남조선당국의 불성실한 자세와 립장이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우리가 북남사이에 진행된 실무접촉들에서 내놓은 제안들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하고 금강산, 개성지구의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게 하는 매우 정당한 제안들이다. 만일 남측이 개성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와 금강산, 개성지구의 관광재개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의 립장과 태도는 구태의연하였다. 남측은 얼마전에 있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접촉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로임인상을 비롯한 본질적문제들에 대한 협의는 회피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들고나왔으며 뚱딴지같이 북남군사실무회담에서 토의해야 할 《3통문제》를 론의하자고 우겨댐으로써 실무접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지금까지 《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관광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질질 끌어오던 《통일부》패거리들은 이미 다 해결된 이 《3대조건》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면서 부당한 주장을 계속 고집하였다.

지어 남측은 회담장에서 《회담을 그만두자》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에 대해 심히 오만불손하게 행동하고 《묵념》이니 뭐니 하는 참을수 없는 도발까지 걸면서 접촉을 의도적으로 파탄에로 몰아갔다. 하여 모처럼 마련된 최근의 북남실무접촉들은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결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껏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 민간단체들의 공화국북반부방문과 소소한 협력사업마저도 가로막아온 현인택일당은 얼마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과 불교단체들의 공화국북반부방문을 또다시 차단해버리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원칙고수》니 뭐니 하며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강행실시함으로써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로 마련되였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흐려지고 북남관계가 더욱더 파국에로 치닫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최근 괴뢰군부는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판에 남조선통치배들이 그 무슨 《원칙고수》니, 《지지》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대북정책》을 합리화, 정당화하려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망동인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던 북남관계가 다시금 파국에로 치닫고있는 오늘의 비극적현실은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며 그 실행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있다.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온 겨레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반통일역적들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실용》독재의 2년 (2)

외세추종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친 반역무리

남조선보수패당이 집권 2년간 저지른 죄악가운데서 가장 엄중한 죄악의 하나는 《외세우선》론을 제창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해친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굴욕적인 대미종속관계를 심화시켜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었다.

《대통령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미국상전들앞에서 《전통적인 동맹강화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하수인이 될것을 《맹약》한 남조선집권세력은 권력을 장악한 후 추악한 사대매국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들이 친미사대에 얼마나 미쳐돌아갔는가 하는것은 지난 2008년에 있은 집권자의 미국행각때에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남조선당국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 의해 차요시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그것을 《21세기 전략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동맹 3원칙》이란것을 내들고 상전의 옷자락에 바싹 매달렸다. 그들이 부르짖은 《21세기 전략동맹》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행각기간 백악관과 정계, 군부요직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군감축을 중단》해달라느니, 남조선의 미국무기구매지위를 나토수준으로 올려달라느니 하고 애걸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미군의 남조선주둔과 기지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물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늦추어줄것을 애걸하면서 북침전쟁을 위한 《련합방위능력》강화에 대해 모의하였다.

더우기 상전과의 그 무슨 《범세계적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에 대해 운운하면서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설것을 약속하는 추악한 망동도 부렸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미국행각시 상전에게 《동맹강화》를 구걸하는 대가로 미국에 남조선소고기시장을 개방하는 용납못할 매국행위를 저질렀다.

남조선당국이 국제적으로도 배격을 받고있는 미국소고기의 수입을 재개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수많은 축산농가들은 파산몰락하게 되였다.

남조선사회계가 한결같이 당국자의 미국행각을 가장 수치스러운 《망국행각》, 《조공행각》, 《굴욕행각》이라고 비난한것은 우연치 않다. 남조선당국의 친미굴종행위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동맹강화〉는 식민지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거세게 터져나왔겠는가.

지난해 미국에서 상전이 바뀌자 그에게 그 무슨 《희망을 보여주었다.》느니, 《력사적》이니 하고 온갖 아양을 떤 매국노들은 지난해 6월 골라골라 북남공동선언발표기념일에 또다시 수치스러운 미국행각의 길에 올랐다.

행각과정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전과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매국문서를 발표하였으며 《굳건한 동맹관계의 재확인》이니, 보다 확대된 《포괄적인 전략동맹의 구축》이니 하고 떠들어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세기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에 대한 남조선보수당국의 아부굴종은 더욱더 역겨운것이였다.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집권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를 묻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떠들고 일본과의 《성숙된 관계》를 위해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싶지 않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반동들에게 더러운 추파를 던지였다. 그들은 미국행각후 곧장 일본으로 날아가 그 무슨 《신협력시대》와 《동반자관계》를 떠들며 일본반동들의 과거범죄행위를 묵인해주었으며 《랍치문제해결》을 운운하는 등으로 상전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치사스럽게도 《화해》와 《협력》을 구걸하였다. 매국역적들은 지어 일본왕을 《천황》이라고 개여올리면서 그의 남조선행각을 간청하기까지 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조선재침책동에 대한 남조선 현 보수당국의 묵인과 타협은 력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매국반역의 극치이다.

지난 2008년 7월 일본을 찾아간 남조선집권자들은 일본수상의 독도강탈망발에 항의할 대신 《지금은 곤난하니 좀 기다려달라.》고 애걸하였는가 하면 일본정객들의 력사외곡과 독도령유권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박도 없이 오히려 《정치인은 개인의 의견을 말할수 있다.》고 떠벌여 남조선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치고 친일행위를 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일본의 과거죄악과 재침책동을 덮어버리고 묵인할 의사를 이처럼 로골적으로 표시한 친일역적들은 없었다. 오죽했으면 일본언론들이 《보기 드문 첫 친일파정권》이라고 환성을 올렸겠는가.

침략적인 외세와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외세에 추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실용정권》의 매국행위의 후과는 참으로 크다. 미국상전에게 《동맹강화》를 구걸한 대가는 인민들의 존엄과 생명을 해치는 소고기시장개방, 그들의 혈세를 탕진하는 미군유지비증액과 미군증고무기구입, 페기탄약의 처리이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줴버리고 일본상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는 신시대협력관계》를 구걸하며 그들의 《랍치문제》소동에 맞장구를 친 결과 빚어진것은 일본의 력사외곡, 독도강탈소동이다. 집권 2년간 남조선괴뢰당국이 침략적인 외세와의 《동맹강화》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엄중히 해친것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매국반역행위이다.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이 사대와 매국에 환장하여 외세를 할애비로 섬기며 민족을 반역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이 이제 또 우리 겨레에게 어떤 화를 몰아올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 겨레는 민족을 등지고 친미, 친일행위에 열을 올리는 사대매국노들을 쓸어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결사수호할 애국의 의지를 벼리고있다.

본사기자 송 영 석

당국의 죄행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2월 25일 론평을 발표하여 현 《정권》의 2년간 죄악을 단죄하였다.

론평은 《국민성공시대》를 부르짖으며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현 당국이 그때로부터 불과 2년동안에 암흑의 시대를 몰아왔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친서민》을 떠들던 《정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룡산철거민들과 쌍룡자동차로조원들 그리고 민주를 웨치며 초불을 든 민중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였다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이 기간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류례없는 폭거까지 감행되였으며 6.15공동선언리행이 엄중한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2년은 서민고통과 민주화파탄, 조선반도불안과 위기의 2년으로서 무척 긴 악몽의 나날이였다고 론평은 개탄하였다.

론평은 오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것은 오직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반《정부》련대투쟁의 강화로 당국을 심판하고 민중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재파병계획을 단죄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가 2월 26일 《아프가니스탄재파병계획 전면 백지화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재파병동의안》이 통과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동의안》은 민중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에 의해 매일과 같이 민간인들이 희생되고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또다시 파병하겠다는것은 미국의 전쟁범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미국의 요구라면 침략전쟁도 망설이지 않는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무리라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재파병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평화를 바라는 민중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아프가니스탄재파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온 누리에 차넘친 위인칭송열기

2월의 명절을 세계적판도에서 성대히 경축

진보적인류는 백승의 선군령장,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뜻깊은 2월 16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경축하면서 세계방방곡곡에 축원과 칭송의 꽃바다를 펼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세계정치원로, 친출위인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하여 캄보쟈국왕과 대왕,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외무성, 국방성,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라오스안전보위성, 먄마외무성, 수리아부대통령, 기네통일진보당 총비서, 메히꼬로동당,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중국국제우호련락회와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 로씨야 모이쎄예브명칭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과 《21세기관현악단》 등 5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대표부들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선물을 삼가 드리였다.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드시고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로씨야 국제자선단체련맹 《선의의 세계》에서는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훈장을, 네팔기자협회에서는 《2009년 평화상》을, 메히꼬 오아하까주에서는 《락월한 벗》명예칭호를 드리였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2009년에 국제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복잡하였지만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 《2009년 평화상》을 드리게 된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간주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고 의의있게 맞이하려는 진보적인류의 념원을 반영하여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로씨야, 캄보쟈, 인도네시아, 프랑스, 에짚트, 민주꽁고, 우간다, 메히꼬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련이어 결성되였다.

집권당, 진보적정당, 단체들과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의 주최로 백두산천출명장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소개하는 경축집회, 토론회, 강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세계 8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300여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행사장들에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위업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강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는 온 세상이 우러르는 가장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시다, 그이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조선은 그 어떤 대국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으로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주체사상과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계신다고 칭송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서기장은 김정일각하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그이는 정의의 위업의 수호자, 향도자이시다,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과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제국주의의 온갖 제재와 전쟁도발책동에도 끄떡없이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하면서 그이를 모심으로 하여 령토나 인구수로 볼 때 크지 않은 조선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조선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경탄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진보적인류를 크게 고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다르 디마스끄출판사에서는 도서 《김정일, 선군정치론》을 출판하였으며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 단체들은 기념불레찐을 발행하거나 인터네트에 《김정일, 결단성있는 령도자》, 《인류공동의 명절》,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헌신의 한해》 등 제목의 글들을 올리였다.

한편 각국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격동적인 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민족만대의 번영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라오스신문 《늠라오》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신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이나 정책을 제시하여도 거기에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신다,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김정일령도자의 인민관이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김정일각하는 조선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고생을 달게 여기시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는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력사에는 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해방과 인류의 진보에 공헌한 위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도 조선의 김정일각하처럼 인류를 위하여 특출한 공적을 세우신 위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내용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치에 있어서 가장 높으며 생활력에 있어서 무한대한것이다.

우루과이 《쎄. 에끼스36라지오 쎈떼나리오》방송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시여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데 대하여 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세계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라고 칭송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선군으로 평화를 수호하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길이 위용떨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뜻깊은 2월에 세계방방곡곡에 뜨겁게 굽이친 위인칭송의 대하는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비렬하고 고약한 처사

지금 일본에서는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얼마전 일본 《랍치문제담당상》은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재일조선학교를 제외시킬것을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조건에서 조선을 모국으로 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가의 세금을 쓰는데 대해 국민의 리해를 얻을수 없다는 피이한 소리를 내돌리고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일본에서는 재일조선학교를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맹렬해지고있다. 대조선적대의식,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찬자들의 비렬하고 고약한 행위이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지난해에 있은 총선거시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그 리행을 위한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내용으로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취지로 보나 재일조선학교는 응당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된다. 문부과학성의 고위관리도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진짜로 지원대상에 적합한가 등 교육내용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판단한 다음 결심을 내릴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하나 재일조선학교를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여기에 랍치문제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재일조선학생들에게 무거운 학비부담을 강요하는것으로써 그들의 배움의 권리를 빼앗고 나아가서 총련학교들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무분별한 민족교육탄압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교육내용검토요 뭐요 하는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재일조선학교로 말하면 일본정부의 승인밑에 총련조직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특히 총련은 결성이래 일본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과 국내법준수의 원칙을 강령에 밝히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왔다. 따라서 재일조선학교가 일본학교와 동등한 교육권리를 가지는것은 응당하다. 지금까지 재일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은 제기조차 되지 않던 문제이다. 일본반동들이 들고나오는 그 무슨 교육내용의 검토놀음은 없는 허물을 들추어내여 재일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너절하고 유치한 광대극이다.

재일조선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보나 후대교육의 견지에서 보나 일본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걷어치워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협약이 밝힌 내용의 하나이다. 이른바 《평등》과 《인권옹호》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일본당국자들이 재일조선학생들에게 차별적이고 멸시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는것은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로 된다.

재일조선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의 세금을 쓰는것을 국민들이 리해할지 모르겠다는 일본반동들의 언동 역시 어불성설이다.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있다. 일본은 재일조선인들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면 냈지 그 어느 세금항목에서도 제외시키는것이 없다. 일본반동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생억지를 쓸수록 세상사람들의 조소밖에 자아낼것이 없다.

일본수상 하또야마는 올해시정연설에서 차별과 편견이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가의 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일본당국이 재일조선학교를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아무런 리유와 근거도 없다.

일본에서는 지난날도 그렇고 지금도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무지막지한 폭행이 계속되고있다. 재일조선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찢어놓는가 하면 칼로 찌르고 협박을 가하는 등 야만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재일조선인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다.

재일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것은 그 연장선에서 감행되는 반총련, 반공화국소동이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인민과 총련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거역하여 민족차별, 멸시정책을 강행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만사람의 더 큰 미움을 사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재일조선인박해와 차별책동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계가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정책을 저주규탄하고있다. 민족차별정책으로 조일관계를 위기에 몰아넣는것은 일본에도 리롭지 못하다.

일본은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를 심중히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차후행동을 지켜볼것이다.

백문규

조선축구팀의 성공은 강철같은 의지와 정신력의 승리

메히꼬신문 《우니다드 나씨오날》 2월 15일부가 《조선축구 또다시 세계에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세계를 놀래웠던 조선축구》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제8차 월드컵경기대회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우리 나라 축구팀이 이딸리아축구팀을 이긴데 대해 전하면서 《동방에서 온 신비한 팀》이 유럽축구의 신화를 깨뜨리고 조선축구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선축구가 유럽땅에 던진 파문은 대단한것이였다, 사람들은 조선축구를 《금강석축구》, 《천리마조선의 기적》이라고 하였다, 외신들은 조선축구팀은 공격축구를 재생시킨 《금강석과 같은 존재》로서 세계축구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도했었다고 전하였다.

신문은 《또다시 세계에로》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우리 나라 축구팀이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본선진출자격을 획득한데 대해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시아지역 예선경기들에서 조선팀은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계의 출판보도물들은 대조선제재와 적대시정책 등 외부적환경으로 《공정한 경기》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 상태에서 조선축구팀이 거둔 이번 성공은 강철같은 의지와 정신력의 승리라고 평하였다.

최근년간 세계를 놀래우고있는 조선축구의 성과를 두고 《조선선수들의 정신력을 따를 팀은 없다》, 《완강한 투지와 의지를 소유한 팀》, 《집단주의정신이 가장 우수한 팀》이라는 평가들이 터져나오는것은 우연치 않다. 조선축구팀의 기본특징은 의심할바 없이 강한 정신력과 의지력이다.

나라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하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선수들의 투철한 정신이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조선팀의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본선진출이라는 결실을 안아왔던것이다.

본사기자

강화되는 력사외곡행위와의 투쟁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력사외곡행위와의 투쟁이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모스크바시에서 력사외곡행위와의 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실무그루빠가 조직되였다. 사회학자들과 광범한 사회계대표들이 망라되여있는 이 그루빠는 앞으로 력사외곡행위와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로씨야사람들은 물론 국제사회계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 쏘련의 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승절을 맞으며 집회, 공개토론회와 대학생들과 대학 및 기타 학교의 력사교원들, 과학자들, 로병들과의 상봉모임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력사외곡행위에 타격을 주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며 로씨야의 승리의 력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도록 교양하자는것이 실무그루빠조직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미 《2차세계대전의 외곡과 로씨야의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력사교원들을 위한 공개강의가 진행되였다.

지난해 로씨야대통령직속으로 로씨야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는 력사적사실과 사건들에 대한 외곡된 정보들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작성하며 정부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할 사명을 지닌 력사외곡행위와의 투쟁위원회가 조직된데 이어 모스크바에서 실무그루빠가 조직된것은 로씨야에서 력사외곡행위와의 투쟁에 힘을 넣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러한 실무그루빠들이 조직될것이 예견되고있다. 로씨야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는것은 최근년간 서방과 일부 나라들에서 력사외곡행위가 로골화되고있는 실정과 관련된다.

최근시기 서방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진실을 가리우기 위한 일대 깜빠니야가 벌어지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발발의 책임을 이전 쏘련에 넘겨씌우고 전쟁승리에 결정적기여를 한 쏘련의 역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밑에 벌어지는 이 깜빠니야에는 서방의 언론수단들과 학계, 문학예술계가 동원되고있다. 지어 력사외곡행위는 이전 쏘련군대와 인민이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벌린 정의의 전쟁을 《침략행위》로 락인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로씨야는 이러한 력사외곡행위가 로씨야의 국제적영상과 지위를 훼손시키고 로씨야사람들의 민족적자존심을 깎아내리며 나아가서 로씨야의 전략적리익에 부정적후과를 미칠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고 인정하고있다.

로씨야사회계는 앞으로 서방의 력사외곡행위가 우심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발발의 책임이 마치도 로씨야에 있으며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을 반대하여 벌린 정의의 전쟁이 《침략행위》인듯이 인식되게 한다면 로씨야의 국제적영상이 심히 손상당하게 될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일부 주변나라들이 로씨야에 령토문제까지 제기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이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로씨야는 력사의 진실을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선대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하는것은 새 세대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있다.

지금 로씨야의 신문과 잡지들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자료들이 실리고 텔레비죤을 통해 위대한 조국전쟁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 기록영화들이 자주 방영되고있다. 이것은 력사외곡행위에 타격을 주고 로씨야사람들에게 력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다.

앞으로 전승절을 맞으며 력사외곡행위와의 투쟁이 보다 심화될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최학철

칠레에서 지진피해

사고

인디아의 방갈로르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2월 23일 화재가 일어나 9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부상당하였다.

한편 뻬루에서 2월 21일과 22일 3건의 교통사고로 51명이 죽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 20일 네팔의 타나후지역에서 달리던 뻐스가 강물에 빠져 41명의 부상자가 났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서방의 침략기도에 경고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월 24일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무모한 침략기도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서방이 이란의 핵계획을 비방중상하는 거짓선전에 매여달리는 한편 이란주변 지역에 무력을 증강배비하면서 침략기도를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였다.

반꾸바봉쇄책동을 단죄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씰바가 2월 25일 꾸바방문과정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은 꾸바에 대한 부당한 봉쇄조치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꾸바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

이슬람교국가회의기구가 2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티나력사유적을 저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은 침략적이고 도발적이며 무분별한 처사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평화적핵활동을 지지

이란주재 쿠웨이트대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핵에네르기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고 핵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것은 이란의 권리로서 그 어느 나라도 그것을 반대할수 없다고 하면서 쿠웨이트도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에네르기리용문제를 연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의 료녕성에서 습지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현재 성적으로 25개의 습지자연보호구가 꾸려져있다.

이 사업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성의 생태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있다 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국방력강화를 위한 노력의 한 고리로 최근 첫 국산구축함을 건조하여 진수시켰다. 《자마란》호로 불리우는 이 구축함에는 대함 및 대공미싸일들이 탑재되여있다 한다.

뚜니지에서

뚜니지에서 태양 및 풍력에네르기개발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 태양에네르기와 풍력에네르기를 리용한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정부에서 발전소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게 된다 한다.

케니아에서

케니아농업연구소에서 최근 다수확사탕수수품종을 새로 육종해냈다. 이 품종은 이전의 품종보다 사탕생산량이 훨씬 많다 한다.

나라에서는 새 품종을 대대적으로 재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본사기자

일본의 무분별한 무장장비현대화책동

일본이 임의의 순간에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있게 무장장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그 한 고리로 2월 25일 공중에서 직승기들에 연유를 공급할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된 《C—130》수송기가 처음으로 방위성에 납입되여 아이찌현에 있는 고마끼기지에 배비되였다. 공중급유기능을 갖춘 수송기가 배비됨으로써 항공《자위대》직승기들의 항속거리가 늘어나게 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운수부문 근로자들 파업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최근 운수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련일 벌어지고있다.

2월 19일까지 4일째 계속된 파업에는 수많은 운수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처지를 악화시키게 될 당국의 새로운 징수조치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경영형편 악화

미국의 대보험업체인 《아메리칸 인터내슈널 그룹》회사는 2월 26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4.4분기에 기업체에서 입은 손실액이 89억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국토교통성은 올해 1월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물가 인상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경제위기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있다.

올해 1월에 유로를 사용하는 성원국들에서 에네르기가격만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인상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집요한 분렬와해책동

최근 미국과 서방이 수단에 대한 분렬와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해 3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과 서방의 각본에 따라 다르푸르지역에서 《반인륜적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단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였다.

합법적으로 선거된 국가수반을 체포하기 위한 이 전대미문의 조치는 수단정부와 인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에 부딪쳐 4개월만에 철회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올해 2월초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소처리실이 체포문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수단대통령을 종시 체포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만일 체포조치가 끝끝내 실행된다면 수단정부의 평화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며 아프리카에서 령토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가 사분오렬되여 제국주의렬강들에게 먹히우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서방의 부추김밑에 자기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한것은 정치적음모이며 거기에는 수단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비렬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폭로하였다.

수단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또다시 주장해나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처사를 수단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르푸르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방해하고 4월에 나라에서 있게 될 총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것으로 락인단죄하였다. 성명은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국토를 분렬시키려는 미국과 서방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관측통들은 수단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수십년동안 지속되여온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렬강들의 분렬와해책동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의지를 명백히 선언한것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수단의 내부분쟁문제가 미국과 서방의 분렬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50년대 수단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고조되던 시기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우라니움과 원유 등 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의 남부지역만이라도 계속 타고앉아있을 목적밑에 남부의 흑인들과 북부의 아랍인들간의 반목과 리간을 조성하기 위해 온갖 비렬한 술책에 매여달렸다. 그리하여 북과 남사이에 류혈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것은 수단주민들속에 뿌리깊은 분쟁의 씨앗을 남겨놓았으며 그로 하여 지난 기간 나라에서는 정권교체가 빈번해지고 내전이 그칠새 없었다.

영국식민주의자들에 이어 수단에 간섭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미국은 남부의 반정부세력을 정부와의 대결에로 부추겼다.

수단을 《테로지원국》명단에 올려놓고 정부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부세력이 무력으로 정부를 뒤집어엎을수 있도록 수많은 무기와 자금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수단은 아랍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나라이다.》라는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다민족국가인 수단을 내전의 불도가니속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었다.

결과 2004년까지 20여년간 이 나라에서는 북남사이의 분쟁으로 200만명의 사망자와 40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비극이 초래되였다.

그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정부와 인민의 꾸준한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아프리카동맹과 아랍국가련맹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이 나라에서는 북남사이의 분쟁종식에 관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정부가 구성되였다.

이러한 평화수립과정을 달갑지 않게 여긴 미국은 다르푸르에서 《대량살륙》이 감행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수단정부에 대한 제재와 압력소동을 벌리였다.

그것이 잘 통하지 않자 미국은 《수단대통령이 다르푸르에서의 대량살륙의 장본인》이라는 생억지를 들고나와 국제형사재판소로 하여금 그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게 하였던것이다.

국제사회는 저들의 비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주권국가수반까지도 서슴없이 제거해버리려고 날뛰는 미국과 서방의 책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규탄받는 《반테로전》

전세계를 위협하며 허장성세하던 미국의 《반테로전》의 열기가 최근 미국내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말 외국인에 의한 미국려객기폭파미수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급기야 14개 나라 려객들을 특별검사대상에 포함시킨다, 비행장들에 전신검사투시기를 설치한다 하면서 《테로공포증》발작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인이 《9.11사건》을 그대로 모방한 자폭공격을 단행하여 전국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지난 2월 18일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죠세프 스태크라는 53살 난 남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7층짜리 세무기관 청사를 들이받아 자살하였던것이다.

비행기가 도시의 번화가에 자리잡은 세무기관 청사중심부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자 요란한 폭발소리가 울리고 건물은 검붉은 불길에 휩싸였다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거리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죠세프 스태크는 유서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과 그로 인한 세금, 의료, 보험, 금융 등 분야에서의 허다한 사회적불공평을 신랄히 비난하면서 그에 대해 복수할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문제는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그가 경찰이나 비행장측의 아무런 단속도 받지 않고 유유히 비행기에 올라 리륙한 사실이다.

이것이 전해지자 미국인들은 《9.11사건》의 악몽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반복될수 있었는가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렇게 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올해초 미국비밀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현 미국집권자가 처음으로 차린 국가만찬회에 3명의 불청객이 무난히 끼여들어 잔을 찧었으며 부대통령과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한다.

대통령경호사업에도 구멍을 내는 판에 하물며 비행장같은데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야말로 《자유세계》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사실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세계각지에서 총포탄을 쏘아대며 《반테로전》의 열기를 올리는 미국이 바로 제 집마당에서부터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맞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외신들은 미국이 반인민적이고 지배주의적인 대내외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미국내에서든 국제무대에서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절대로 그쳐지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ㄱ-01035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